



영원한 '피에로 아저씨'

박섭목



웃음과 희망 전하는
마흔 살의 '어린이'



자신을 '마흔살의 어린이'라고 소개하는 박섭목씨. 그는 천상 피에로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다. 빨강고 등근 코, 하얗게 분을 바른 뺨의 피에로. 박섭목(40) 씨는 피에로다. 무대에선 마냥 웃는 '피에로 아저씨'지만, 무대 밑 현실로 내려오면 눈물을 흘린다. 세상은 그에게 베체트병이라는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전국의 어린이들을 찾아 무료로 피에로 공연을 펼친다. 힘들어도 공연만은 멈추지 않는다. 해맑게 웃을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정기 공연에 쫓겨도 고단함에 지쳐도 그는 웃음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행복'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영원한 피에로이고 싶다

피에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유치원 체육교사였던 박섭목씨는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게 마냥 좋았다. 하지만 마음 속은 늘 무언가 2%가 부족했다. 문제는 아이들과의 교감이었다. 그래서 생각을 뒤집었다. '무엇을 보여 주기'보다 '어떻게 그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지'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그래서 그가 배운 것이 레크리에이션, 피에로와 동화 구연, 미술, 마임, 풍선 만들기 등 딱지는 대로 익혔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과 몸짓을 배워갔다. 자신을 '마흔 살의 어린이'라고 소개하는 그의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수시로 피에로 공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심지어 마음은 3년을 따라다녔죠.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채, 혼자 등분서주하는 저를 보고 정통성이 없다고 무시까지 하더군요."

사실 그는 돈도 없었다. 유치원 일을 그만두고 아예 피에로 일로 전업하면서 돈벌이는 더욱 시원치 않았다. 무늬가 몽개진 카드를 다시 색깔해 썼고, 길거리 쇼윈도를 전신 거울로 삼아 자신의 몸짓 하나 하나를 스스로 만들어갔다. 생활은 더 쪼들렸다. 피에로를 그만 둘 생각에 조리사자격증을 따지만 늦은 나이는 취직도 어렵게 만들었다.

"아내가 제 손을 맡았어 잡아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괜찮아요. 어보!' 그때 피에로 인생을 다시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는 천상 광대였다. 좀더 일찍 피에로 일을 알았으면 더 많이 빠르게 배웠을 거라며 오히려 아쉬워했다. 식당 배달원, 웨딩 비디오키스도 했지만 그는 피에로 일이 가장 재밌고 행복했다.

식지 않는 그의 열정은 지금까지 직접 써온 공연시나리오 편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편이 넘는다. 그것도 순전히 창작극이다.

"아이들이 잠하면 밤낮으로 미친 듯이 메모를 했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할까', '진정한 사람의 행태를 어떻게 전할까', '제겐 창작 모티브를 잡는 것 자체가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무료 공연 나선 사연

그렇게 피에로 인생을 걷기 시작한 박씨. 그가 무료공연에 나서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지난 2003년 동두천보건의소에서 자폐아를 위한 공연을 제안 받은 그는, 정기공연이 빈 시간에 피에로 공연을 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자폐아들은 무표정으로 그를 대했다.

"버거웠어요. 객석의 반응이 없으면 광대는 신이 안 나오. 힘든 공

사실 그는 난치병 환자다. 10만 명 가운데 4명 정도가 걸린다는 베체트 병. 처음에는 아픈지도 몰랐다. 그저 바쁜 일정에서 오는 피로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다. 돌아다니기 병원만 수십 곳. 3년 전 진단받은 베체트 병은 혈액에 염증이 생겨 몸속 구석 구석을 돌아다니며 병을 유발해 쉽게 피곤해지고 여기



박섭목씨가 4월 22일 서울 서당복지관에서 무료공연을 하고 있다.

연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한 자폐아가 '아, 재밌어'라고 외치더군요.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그는 소외 받는 아이들에게 눈을 돌렸다. 10년간 전국의 보육원 재활원 복지관 등에서 아이들과 자폐인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2백여 회 해 왔다.

"마냥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좋아요. 피에로를 처음 본 아이들이 무서워하다가도 '아저씨'하고 달려들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오히려 아이들의 미소에서 청량제를 얻어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주는 것보다 얻어 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는 한 마디를 더 보탤다. 무료 공연은 그에게 '솔직함'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천성이 광대기질에 있음을 자인하게 된 것도, 해맑은 아이들에게 순수함을 확인하게 된 것도 이런 솔직함에서 비롯됐다.

"공연하는 그 시간만큼은 가식이 없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스스로 마음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마음의 빗장이 열리면, 대화를 하듯 서로의 눈을 마주 보게 돼지요. 그럼 눈속으로 빠져드는 순수함을 경험하게 돼요."

난치병도 이랑곳 않고

벌써 몇 년째 자기 돈 들여가며 봉사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박씨.

난치병 불구 10년간 2백여 무료 공연
시나리오 직접 쓴 '성교육 인형극'도
꼬마들 미소보며 배우는 것 더 많아

저기 염증이 생기지만 치료가 힘든 난치병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공연을 보고 즐겁게 웃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몸이 근질근질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도 그가 힘을 낼 수 있는 후원자가 됐다. 부인 유희정 씨(38)와 3형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줬다.

"3년 전부터 아이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막의 사이에 공연을 해요. 큰 놈 중견이는 태권도를, 둘째 중현이와 막내 기쁨이는 노래와 춤을 추죠. 자폐인을 위한 공연을 갔을 때 처음엔 무서워하더니 나중에는 친해져 다음에 또 가져오 하더군요."

박씨는 최근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중 25%가 13세 이하의 어린이라는 뉴스에 충격 받고 관심을 갖게 됐다. 그 뒤 전문교육을 받고, 직접 시나리오를 썼다. 또 연출도 맡아 '우리 몸은 소중한요' 등의 인형극 작품을 완성, 공연을 했다. 올해는 충북도청과 함께 유아정보센터에서 공연을 시작했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팔자'라는 박씨. 그는 티없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삶을 사는 이유를 발견한다.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혜옥입니다.
삶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불교방송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저도 늘 불교방송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에서만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라디오에도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5분 <김혜옥의 아름다운 초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